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 훈 석[†] 양 애 경 이 선 주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 변동의 축으로 자리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안산)와 농촌(영암) 지역의 내국인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접촉 경험,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관한 인식을 조명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조사된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실체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역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를 전제로 공생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현 단계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입 및 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방향의 문화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의 문화적 다원화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의의, 그리고 장래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수용성, 문화적 다원화, 다인종·다문화 사회

* 본 논문은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방대한 양의 면접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고한 김선화, 정혁 연구원, 그리고 성균관대 심리학과 사회심리/임상심리 교실의 용정순 석사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 3가 53, E-mail : hchoi@skku.edu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 8월 현재 국내에는 백만 명을 웃도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인구 대비 2%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10%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민자이며, 이들 가운데 2006년 기준으로 88%에 해당하는 8만 2천여 명이 여성이다(법무부, 2007).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주는 1990년대 중반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들과 한국 농촌의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민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 역시 수도권과 8개 광역도 모두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통계청, 2007). 한 조사(법무부, 2007)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백 50만 명을 넘어서고, 결혼이민자는 그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2십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에서 총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참조: 통계청,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을 매개로 한 여성의 국가 간 이주 현상은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및 전 지구화 과정(globalization)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Castles & Miller, 2003). 또한 여성결혼이민은 이주 여성들의 자국 경제 및 사회 환경과 유입 국가의 경제 및 사회 환경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따라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로의 유입은 단순히 이주 여성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차원을 넘어서 성, 계급, 인종, 및 국가 간 관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로의 이행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또한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구성 기반을 이루어온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축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문화적 소통 및 통합, 그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및 지원,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뿌리를 둔 새로운 공동체의 설계 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학계 및 현장의 연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참조: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5), 최근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예: 설동훈 등, 2006; 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이숙정, 정하나, 우현경, 2006; 정일선, 2006; 주경미, 김현지, 이옥경, 2006).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생애체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겪는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피동적 문화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 문화 적응자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연구들이 일부 보고되었다(예: 김이선 등, 2006; 최금해, 2005).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일련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2006).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적응에 초점을 두고, 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의 현실을 조명하는데 집중했다. 반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전반적 수용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흡수하고 그에 동화되는 과정이 아닌,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간 양방향적 문화 소통 과정을 통해서 조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 하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와 달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의 제 단면을 질적 연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직접적 상호 접촉의 경험을 지닌 도시(안산)와 농촌(영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를 통한 양화된 접근법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심층 수준의 태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을 취하였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조명하는 작업은 장차 지역의 다문화 이해 및 이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현실적 대안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및 과제를 발굴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제시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

문화 간 접촉 장면에서 접촉 당사자들의 상대방 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공적 또는 사적 대면 경험의 성질에 의해서 영향받는다(Gudykunst, 1998). 이 관점과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은 이주 여성들의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그들과의 공적 또는 사적 대면을 통해 형성된 태도와 행동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 경험,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지역사회 수용성의 세부 차원 및 각 차원의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접촉경험

문화 간 접촉에서 이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촉 당사자들의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Gudykunst 1998; Gudykunst, Ting-Toomey, Sudweeks, & Stewart, 1995). 실제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대방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전반적 태도와 행동 경향성은 상

대방 집단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과 내용에 의해서 영향받으며, 이는 집단 간 갈등, 인종 편견 및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심리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바이다(참조: Brewer, 2003; Crocker & Major, 1998; Fiske, 1998). 또한 Triandis(1994)에 따르면, 특정 문화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가시적, 실체적 문화요소(예: 의식주, 문화적 인공물 등)와 비가시적, 비실체적 문화요소(예: 가치관, 태도, 행위규범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 수용성의 근간을 이루는 이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상적인 생활습관 및 문화의 차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문화 간 접촉 및 문화적응을 다룬 서구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문화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접촉 경험의 성질을 심층 수준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Chun, Organista, & Marin, 2003; Gudykunst, 1998; Liebkind, 2000).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볼 때, 지역주민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 간 접촉 경험의 성질을 이해하는 한 가지 유용한 틀은 집단간 접촉(intergroup contact)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집단 간 접촉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이 집단 간 편견을 줄이고 타집단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Allport, 1954; Stephen, 1985). 첫째, 집단 간 접촉의 빈도가 많아야 한다. 둘째, 피상적 수준의 접촉이 아닌 친밀관계를 수반하는 심층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 여가, 직업 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접촉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다섯째, 접촉 당사자 간 신뢰에 기반하여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경험이 접촉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집단 간 조화와 통합을 고무하고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접촉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간 접촉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성공 접촉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입각하여 접촉의 전반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의 전반적 접촉경험에 더해서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접촉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성질을 심층수준에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갈등은 거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보편 현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간 접촉에서 접촉당사자들은 사고와 행동, 생활습관에서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경험하며, 실제로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전반적 수준 및 성질은 이문화 수용성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Gudykunst, 1998; Liebkind, 2000).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전반적 수준 및 갈등의 근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접촉 당사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귀인하는데서 비롯되며, 이러한 오해는 주로 언어 장벽 및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다. 문화 간 접촉에서 발

생하는 갈등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양립불가능성(incompatibility) 지각이다. 즉, 접촉 당사자들이 상대방 집단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이 자기 집단의 그것들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이 발생한다(Gudykunst, 1998). 이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및 문화 차이에 관한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화간 접촉 장면에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전통적으로 접촉 당사자들이 상대방 문화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와 행동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다(Berry, 1997; Ward, 1996 참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Cushner, 1986; Loo, 1999)은 이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문화 수용 의도를 중심으로 개인의 문화적 민감성(cross-cultural sensitivity)을 측정하여 이문화 수용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이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수용 의도는 다양한 문화간 훈련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예: Bennett, 2001; Black & Mendenhall, 1990; Chen, & Starosta, 2000; Gudykunst, Guzley, & Hammer,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와 행동의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에 관한 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태도 대상으로서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주관적 신념과 감정, 행동 경향성 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반면, 후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행동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상징적 인종차별(symbolic racism) 또는 현대적 인종차별(modern racism)에 관한 심리학 연구(Dovidio & Gaertner, 1996; Kinder & Sears, 1981)에 따르면, 표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그 집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견 및 감정을 묻는 방식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대신 표적 집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전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한 의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배려에 대한 태도, 지역주민과 동등한 권리보장, 지역사회 참여허용, 이혼자 지원, 취업허용 및 지원,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 추가적 유입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중다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심리학분야에서 성이나 인종과 연합된 고정관념 및 편견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McConahay 1986;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Tougas, Brown, Beaton, & Joly 1995; Pettigrew & Meertens 1995 참조).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노력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탐색할 수 있다. Berry(1997, 2003)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행동유형은 크게 자기 문화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주국 문화에 동화하는 동화형, 이주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문화를 고수하는 분리형, 자기문화와 이주국 문화 모두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는 주변형, 그리고 자기문화 유지와 이주국 문화에 대한 동화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문화간 융합을 시도하는 통합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통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문화적응 행동으로 간주된다. 만약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적응 노력을 통합의 시각이 아닌 일방적 동화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의 또 다른 단면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행동의도는 친교 관계 수립 의도나 관계 지속 의도, 개인적 지원의 제공 등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에 직접적으로 지향된 행동의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외국인과의 결혼 수용이나 그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수용할 의도, 그리고 자녀들 간 교류 허용 등의 간접적 차원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심층수준의 행동의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접촉 당사자들의 전반적 인식은 문화 간 접촉의 성질 및 이문화 수용에 관한 접촉 당사자들의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rry,

1997; Chun et al., 2003; Cushner & Brislin, 1996; Gudykunst et al., 1995; Liebkind, 2000).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대인 수준의 생활사건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 문화변화에 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화 간 접촉의 성질, 갈등의 발현 및 전개, 이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행동 의도 등과 같은 구체적 차원들에서의 이문화 수용성을 이해하는 것에 더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유입이 지니는 보다 포괄적 의미, 즉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사고 및 신념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주민들을 심층면접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방 법

연구절차

사례연구 지역 선정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면접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지역의 선정은 지역의 외국인 및 국제결혼 현황과 최근의 증가추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험,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 등을 비롯하여 현지

지원시설의 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과 여성결혼이민자 간 상호접촉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 1개(안산시)와 농촌지역 1개(전남 영암군)를 선정했다. 2006년 4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 수는 2만 1천여 명이며, 이는 전국 국제결혼 이민자 수의 20%를 상회한다. 특히 2001년 3천여 건에 이르던 국제결혼 건수가 2005년에는 9,900여 건으로 증가(전국 국제결혼 건수의 23%)하는 등 경기도는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해 국제결혼 비중이 매우 높다. 안산은 경기도 내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통계청, 2007). 한편, 2006년 시도별 혼인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구성비는 전남(15.1%), 전북(12.9%), 경북(11.7%), 충남(11.0%), 경남(10.8%), 충북(10.3%)순으로 전남 지역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전남 지역에서는 2006년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남자의 혼인 중 47%가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며, 총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이 15.1%에 이르고,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혼인건수 중 농림업 종사 남성의 혼인건수 비율이 37.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통계청, 2007). 이러한 전남 지역 중에서도 영암군은 다른 시군보다 지역여성 인구 대비 외국 여성의 비율이 0.9%로 가장 높은 곳으로 파악되어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였다. 총 조사대상자는 지역주민 23명(안산시 11명, 영암군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안산의 면접 대상자들은 여성 8명, 남성 3명이었으며 남성은 자영업, 여성은

주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대는 20대 1명, 60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대와 50대였다. 영암의 면접 대상자들은 남성 4명, 여성 8명이며 이들의 학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이 다수였다. 남성은 대부분 농업 종사자였고 여성은 다수가 주부였다. 연령은 3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면접 대상자의 일부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접촉이 활발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시설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지역주민을 소개 받았다. 나머지 면접 대상자의 선정은 이미 면접을 한 피면접자들을 통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소개받는 추적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취하였다. 추적표집 방식은 한정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면접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수용성의 전반적인 양상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방식은 한국에서 사회문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예: 한성열, 이종환,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본조사

본조사는 2007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표 1에 제시한 질문들을 포함하는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피면접자들이 자연스럽게 면접에 응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희망에 따라 일터 또는 자택에서 이루어졌

표 1. 심층면접의 문항 범주 및 세부 문항 예시

면접 문항 범주	세부 문항 (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접촉 경험	인식: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나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인식 등. 접촉경험: 대면 빈도, 대면 계기 및 장소,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친교 여부 및 경로, 친교 이유, 갈등 경험 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반적 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시민적 권리, 정부의 지원, 취업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추가적 유입 등에 대한 태도 등.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 적응노력 정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판단 기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기울여야할 노력 등. 행동 의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상호관계 형성 의도, 가족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수용의사, 지인들에게 여성결혼이민자를 소개할 의도 등.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가장 시급한 대책 등.

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의 익명성을 보장함을 밝혔다. 사례당 면접 시간은 평균 1시간여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자료분석을 위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접에는 연구진 3명과 훈련된 면접 조사회원 1명이 참여하였다.

접촉 경험,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세부 질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피면접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반구조화 면접에 포함된 주요 질문들은 표 1과 같다.

심층면접 문항 구성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심층면접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적절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할 목적으로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안산시와 영암군에서 5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면접문항은 국내외 관련문헌 개관 및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예비 면접질문지를 구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점검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접

결 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접촉경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습관 및 문화,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조사했다(예: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옷차림, 기본예절, 음식, 가족관계 등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

경험은 대면 및 친교경험, 그리고 갈등경험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다(예: 여성 결혼 이민자와 개인적으로 겪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경험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제시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습관 및 문화 가운데 의복이나 음식 문화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이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표면적 차이나 유사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의복이나 음식문화에 담겨있는 민족의식, 종교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심층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의 경우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걸차림에서 한국인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참조: 안산, 사례6). 음식의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에 따른 혐오반응과 부적 고정관념도 일부 나타났으며(참조: 안산, 사례7),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음식문화를 빨리 습득하는 방향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일방적 시각도 있었다(참조: 영암, 사례2).

“근데 뭐 의상이야 이제 전세계 다... 그런 분들은 뭐 주로 바지, 뭐 예를 들어 청바지, 이런 걸 주로 하의는 입고... 뭐 의상이야 거의 비슷하죠.” (안산, 사례6)

“음식은 중국 사람은 자기네 것만 먹어요. 막 튀겨서 아주 중국 사람들이 살다 나가면요 이 가스렌지가 아주 기름 난리에요. 그리고 맨날 튀겨 먹고, 막 계단 올라가면 막 냄새 나고 중국인들은 그리고 모

여서.” (안산, 사례7)

“...(중략)...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저 사람들을 말부터 행동부터 우리나라 사람 생활까지 이렇게 몇 개월 아니면 일 년을 잠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야 현재 내가 살아왔던 거 하고 여기하고는 틀리 구나. 이런 건 고쳐야 쓰겠구나. 이래야 맞구나.’ 하고 살 텐데... (중략)...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음식 같은 해 먹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하고 틀릴 것 아니요.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무조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와서 사는 여자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영암, 사례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식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입각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지역주민들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거나, ‘아내로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존재가 지니는 다문화적 함의나 그들이 처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다기보다 다분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안산 사례5, 7; 영암, 사례7). 이러한 시각은 시대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참조: 영암, 사례10).

“처음에 결혼하면은 다들 어렵잖아요...

(중략)... 견디질 못하고 뛰쳐 나오면. 그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이쪽으로 결혼하고 하는데. 솔직히 살다보면 편하기만 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때도 있고. 그걸 참고 견디다 보면...(중략)... 그걸 못 참고 나갈 때도 있고, 진짜 폭력적인거만 아니면 애지간하면 살아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안산, 사례5)

“(중략)... 나이 먹은 40-50 대 남성들 있잖아요. 그런 남성들을 어떻게 식당 같은데서 중국 분들이 소개를 시켜주나봐요.. (중략)... (자기네) 주의로 살고...(중략)... 남편이 번듯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술 먹고 놀아요...(중략)...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으면 진짜 우리가 한국 여성 남성 결혼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주고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편이랑 살아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안산, 사례7)

“(중략)... 자기네 나라 자기네 편한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편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오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중략)... (중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밥 먹을 때는 꼭 수저 젓가락이 있고 국이 있고 그 반찬은 항상 여러 가지 놓고 먹는다...” (영암, 사례7)

“...(중략)... 한국 여자는 부모 형제간에 우리 예절을 제대로 해요. 농사짓고 하면 들에 가서 그런 것 하는 것도 알고... 자기 문화만 생각하면 여기와서 살아진다고? 우리나라 문화를 자기들이, 말이 있어 여자

는 결혼하면 시간을 식한다고. 여기 오면 노력을 하고 살아야지... 어른들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하고 다 어렵지, 그 집 식구가 되어야 하는 것만큼 숙달이 될 때까지 고생을 하지.” (영암, 사례10)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접촉 경험

피면접자들이 대면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은 필리핀, 태국, 일본, 중국(연변),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다양했다. 면접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접촉한 기간 역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로 다양했다. 여성결혼이민자와의 대면 및 친교경험에서는 지역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시인 안산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이웃이나 고객, 또는 피고용인 등의 형태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과 개인적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안산, 사례5). 이는 이웃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화된 도시 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산과 달리 영암에서는 주민 피면접자 12명 중 5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했으며 ‘알고 지내는 정도’에서부터 ‘서로 농사일과 김장을 도와주는 정도’까지 다양한 친교관계가 관찰되었다(참조: 영암, 사례8). 영암과 안산의 주민 피면접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언어나 지적이었다(참조: 안산, 사례1). 그리고 반상회나, 부녀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이 지역주민과 여성결혼이민자 간 접촉의 장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문제나 원주민들의 배타

성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러한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안산, 사례7).

“그냥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깐, 중국 사람은 손님으로 접대를 많이 하지.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없고. 그냥 여기 장사를 하다보니깐 서로 좀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안산, 사례5)

“네 자주 만납니다.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우리 집 일을 도와러 오기도 하고, 김장 할 때 같이 일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집을 오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밖에서도 만나고... (중략)” (영암, 사례8)

“어려운 건 일단 한국말이 안 되니깐, 의사소통이 제일 심하게 안 되고. 의사소통이 당연히 안되니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지 않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니깐.” (안산, 사례1)

“...아직은 못해요. 들어갈 틈이 없죠...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여성이 얼마나 센데요. 기존의 그 텃밭이 너무 세요...(중략)... 그 울타리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도 새로 이사 오면 꿈쩍도 못하는데 어디 외국인이...” (안산, 사례7)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갈등 경험에 대해서는 면접에 응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언어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 오해이외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일부 피면접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참조: 영암, 사례4). 면접에 참여한 주민들의 응답에만 기초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심각한 갈등 구조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지역주민과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에는 현실적 갈등 요인(예: 직업, 공간,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접촉 빈도가 낮고 피상적 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피면접자들은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갈등도 없다’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는데(참조: 영암, 사례7),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심층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면이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하면 잘 알아듣고, 다 알아먹으니까,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합니다. 아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가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뭘 말을 하겠어요...(중략)... 말을 해봐서 뭘 하겠어...(중략)... 그래도 우리 동네 왔으니, 우리들이 좀 잘해주자 하지. 사는 게 지장없고.” (영암, 사례4)

“(갈등 경험)없죠. 왜 그러냐면 그게 대화를 깊게 못하니까. 크게 느끼지도 못해요. 그 대화가 짧잖아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구나, 이

렇게 느낄 정도는 안 돼요. 일단은 깊게 접근이 안 되니까.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영암, 사례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전반적 태도(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평가(예: “이 지역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행동의도(예: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저녁이나 생일파티에 초대할 의향이 있습니까?”)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고 이 차원들에서 피면접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방성 수준을 진단해보았다. 이에 더해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전반적 문화 변화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의 첫 번째 단면인 지역주민들의 전반적 태도는 피면접자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직접 묻는 방법대신, 중다차원에서 피면접자들의 태도를 탐색하였다. 이는 피면접자들의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파를 최소화하고 가능

한 한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전반적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그들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견, 취업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 지역발전의 기여에 관한 의견, 추가적 유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서 심층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면접자들은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대세론과, ‘한국 사람과 결혼에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라는 소극적 인정형이 다수를 차지했다(참조: 안산, 사례6; 영암, 사례10). 안산과 달리 영암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라거나 ‘한국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데려왔으니 응당 지역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는 영암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총각 짝짓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참조: 영암, 사례 8, 12). 비록 소수이지만, 일부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태도는 ‘단지 이방인으로 와서 잠시 지역에 머무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언어와 사고방식이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참조: 영암, 사례7).

“당장에 내일이라도 쫓아내야한다는 강 경론을 펼치는 분들도 계신데, 어차피 여기 원곡본동은 이제.. 이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하고 함께 해야...”(안산, 사례6); “그러죠. 같이 사니깐. 같이 살고 있고, 이곳에 살려고 왔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영암, 사례10).

“시집을 와서 얘기도 낳고 했으니깐 이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영암, 사례8); “님의 나라에서 데려왔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 한국 결혼을 못하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동네에서 살라고...(중략)...” (영암, 사례12).

“아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틀리고, 일단 말이 틀리니까 생각하는게 틀리니까, 그 때 마다 이해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쉽게 바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암, 사례7).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대, 조건부 찬성, 적극적 찬성, 및 투표행위 자체에 대한 회의론 등 다양한 태도가 관찰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나타낸 피면접자들은 ‘한국에서 살려고 왔으니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야한다’는 공평성에 입각한 논리를 가장 자주 언급했다(참조: 안산, 사례11; 영암, 사례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한

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참조: 영암, 사례2), ‘그들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참조: 안산, 사례3).

“당연히 줘야 할 것 같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혼인신고 해갖고 여기서 애들까지 낳고 다 살잖아요...(중략)... 당연히 줘야할 것 같아요. 줘야죠. 우리나라 이쪽으로 왔으니까.” (안산, 사례11);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중략)... 이쪽으로 이주를 왔잖아요 근데 서로 좀 차이를 준다면 좀 너무 이질감 같은거 느낄 것 같아요.” (영암, 사례5)

“줘야죠. 당연히. 그래야 그 사람들이 뿌듯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첫째 권리를 나에게 주는 구나. 그래야 자부심을 갖죠.”(영암, 사례2); “일단은 자국민으로 받아들였잖아요...(중략)... 우리 쪽에서는 해줘야죠. 해주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을 지역에서 뭐 그거를 해줘야죠.” (안산, 사례3)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법무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보인 안산과 영암의 일부 피면접자들은 ‘한국 문화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투표권 부여의 법적 기준과 다른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안산, 사례1). 이에 비해서, 일부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그 이유로 그들이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과, ‘투표 행위의 본질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참조: 안산, 사례2; 영암, 사례7).

“그 전제 조건은 한국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아직 그냥 여기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기에는, 그니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기에는 부족하죠.”(안산, 사례 1)

“글쎄요. 투표권을 주는 것까지는 아직은 무리죠...(중략) ... 그분들이 생각 하는게 그러면은 물론, 그분들 나름의 생각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잖아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죠.”(안산, 사례2); “정확하게 옆에서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분의 말만 듣고 그 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중략)... 그제 돈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영암, 사례 7).

셋째, 생계가 곤란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원칙적 긍정 또는 책임론적 시각으로, 이러한 태도는 ‘필요해서 데려왔으니, 책임지고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참조: 안산, 사례 3; 영암, 사례2). 이러한 태도는 영암지역 피면접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고, 도시인 안산

에서도 우세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나라 사람부터 지원해준 다음에’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식의 조건부 긍정형으로,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데 한국 사람부터 먼저 지원해야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기 위해 이주해 왔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한국인’으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면이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안산지역의 피면접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었다(참조: 안산, 사례7, 10). 세 번째 유형은 국가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 반대이다. 이러한 태도는 도시인 안산 지역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개인 사생활까지 국가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 그리고 ‘매매혼이나 위장결혼’ 등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반영한다(참조: 안산, 사례4).

“...(중략)...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건 자기들끼리건 며느리를 봤고 했으면 말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한국에서 어차피 여기서 뼈를 묻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안산, 사례3); “...(중략)... 농촌 총각들 장가를 못 가서 전부 여기 보면 43, 45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온 것이지...(중략)...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총각들 결혼 못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냈지...(중략)... 우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중략)...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영암, 사례 2)

“그런데 지금 〇〇에도 중국인들이 영세

민이 엄청 많대요...(중략)... 우리 한국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인이 그것도 반수 넘게 영세금을 타간대요...(중략)... 이걸 너무 하지 않냐...(중략)... 우리 이쪽 00에 어려운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중략)... 진짜 어려운 사람을 줘야 하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머리 써가지고”(안산, 사례7); “...(중략)... 교포들 불러들여가지고 세금은 다 주고 우리나라 사람 안쳐다본다...(중략)... 우리나라 못사는 사람 훨씬 많아요. 우리 주위에 안보이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 먼저 돕고 나서 그분들을 돕는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안산, 사례10)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이게... 인간 장사지 노예장사지... 그런 걸 지원해준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고... 개인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좋아서 온다는 게 아니라 돈 벌러 오는데 제대로 살겠어요? 애 낳고? 그런 거는 지원할 필요 없어. 개인 사생활 하는 건데 뭘, 국가에서 결혼까지 시킬 순 없잖아...(중략)... 한국 이미지만 더 나빠져. 돈주고 사왔기 때문에. 모든 게 순수하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생긴다니까...(중략)... 불법은 추방해야 돼...(중략)... 범죄 모든 사회문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국가가 뭐하는 놈들이야, 한심한 놈들이지. 국가가 맨날 지원만 한다고 그러고. 나는 무조건 외국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것만 도와주고, 제대로 된 것만 도와주고 하는 거지. 불법이나 편법이나 불순한 용도로 하는 사람들 절대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거야.”(안산, 사례 4).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피면접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세금의 일부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여부나 자녀유무 등을 연결지어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기반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보다는, 결혼관계의 존속 여부나 한국인 자녀의 유무 등을 전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아예 ‘자격이 없어졌다’고까지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참조: 안산, 사례7; 영암, 사례3, 10).

“...(중략)... 애를 낳은 사람에 한해서만 해줘야지. 애를 안 낳으면 혼자 몸인데, 자기 혼자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이혼을 안계끔 노력을 해야지. 이혼하면 당사자들도 다 잘못이 있지만 애가 있으면 여성 혼자 애 키우기가 힘들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도...”(안산, 사례7);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 나가버렸는데... 버려야 한다. 자식을 본다면 조금 도와줘야 할 것 같긴 하다. 만약 자식이 없다면 도와줄 필요는 없다.”(영암, 사례3);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 이왕 한번 만났으면 끝까지 살아야지. 못 살것다고 나가고. 그건 아주 못된 버릇이지...(중략)... 혼자 살 만해도 자식들하고 살려면 한국 사람하고 틀릴 것이요... 집에만 있으면 도와줘야지.”(영암, 사례10)

넷째, 공평성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우세했지만, 농촌지역인 영암의 경우 ‘여성의 취직이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례도 일부 관찰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직업 활동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본원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참조: 영암, 사례12).

“취업하는 사람치고는 오래 못 살더만. 바람이 나더만...(중략)... 여자가 돈을 번다고 하던데 얘기가 있을 때가 되었는데 얘기가 없으니깐 뒤져봤대. 보니까 피임약을 연변의 즈그 언니가 대어줬다고 하더라. 결국은 돈 벌어가지고 가부렀어. 결국엔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와갖고...(중략).” (영암, 사례12)

다섯째,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평가한 원인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안산지역의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경제적 측면을 주된 이유로 언급한 반면(참조: 안산, 사례6), 영암지역의 피면접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거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태도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원인을 주로 언급했다(참조: 영암, 사례1, 4).

“뭘, 돈 같은 거 써주고 그러면 좋죠...(중략)... 중국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어려워요...(중략)...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좋았었어요. 왜냐면 빈 방도 없지방 딱딱 나가지 예전에 방이 13만원이었어요. 방세가... 그런데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26만원 30만원으로 막 오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세가 30만원 하던 게 20만원으로 떨어져요.” (안산, 사례6)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남자를 안정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면서 43살 되어도 장가도 못하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 진짜 힘들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국 여자들은 안 올 것 이고. 나이가 43이니. 누가 43 먹은 사람한테 시집오겠습니까.” (영암, 사례1);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배울 점도 있고, 내가 그래요. 우리 마누라 같은 경우, 옆에 온 아줌마 태국에서 온 아줌마 가서 함 보라. 본좀 따라가라. 한 번 가서 보면 깨끗하니, 나무랄데 없고 잘 좀 보고 너도 깨끗이 좀 해라.” (영암, 사례4)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안산과 영암지역 모두 긍정적 태도가 우세했다. 그러나 추가유입이 필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도시 지역의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참조: 안산, 사례 6, 8), 농촌지역의 피면접자들은 ‘농촌지역 미혼 남성들의 결혼문제 해결’을 가장 빈번하게 지적했다(참조: 영암, 사례1,7). 이러한 긍정적 태도와 달리, 일

부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추가유입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추가적 유입이 문제가 된다는 문제 의식과 도시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안산, 사례7).

“원곡동은 더 들어와야 돼요...(중략)... 일원이 좀 더 있음으로써 더 활성화가 되겠죠...(중략)... 외국인들이 여기가 고향같고 그렇다고 온대요. 와서 여기서 돈들을 써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건데.” (안산, 사례6); “어차피 여기는 지금 차이나타운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중략)... 그걸 떠나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반대하지 않아요.” (안산, 사례8)

“저는 더 환영합니다...(중략)... 그 사람은 조선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에는 거의 뭐 매일 술로 살았죠...(중략)...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어요. 지금 42인가 되는데 굉장히 성격도 밝아지고...(중략)”; (영암, 사례1); “네.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오기는 와야겠죠.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요. 40넘은 아저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외국 여자라도...” (영암, 사례7)

“지금은 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중략)...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도 포용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중략)... 불법체류자들 너무 야비하게들

하거든요. 아주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받아들이겠다고 한다구요. 물론 여기서 조건이 얼마큼 좋아지면 더 들어올 수 있겠죠...(중략)... 지금 무조건 막 와서 그냥 갖다 내 보내고 또 들여보내고 그거는 조금 악순환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야비한 거죠.” (안산, 사례3)

“글쎄요. 좀 그래요. 좀 두려운 것도 있어요...(중략)... 저 안산역 가봐요. 예전에 그렇게 중국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시면요 막 스리랑카, 막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 중국 다 이렇게 몽쳤는데 이렇게 밤에 차 지나가도 안 비켜줘요.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네 차 알아서 가라. 그 정도로.. 안산역 그 쪽은 밤에는 무서워요. 외국인들 때문에... 완전히.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산, 사례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주로 일상적인 생활 사건을 매개로 본인이 직접 관찰했거나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근거하여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고 있다. 피면접자들의 반응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이러한 평가의 토대를 이루는 생활사건의 내용에서는 두 지역 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즉, 안산지역 피면접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소나 종교단체를 통한 적응노력’, ‘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지원의 교환’, ‘지역주민들과의 친교관

계 형성 및 유지' 등과 같은 종교적 및 사회적 생활사건들이 자주 언급되었다(참조: 안산, 사례3, 7). 반면에, 영암지역에서는 '원만한 결혼생활'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정생활 관련 생활사건들과 '한국인과의 행동적 유사성' 등이 전형적으로 언급되었다(참조: 영암, 사례5, 8). 또한, 도시인 안산의 경우 농촌지역과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돈을 받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도 일부 발견되었다(참조: 안산, 사례9).

“다른 쪽 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낫죠...(중략)... 여기 상담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OO이 있기 때문에...(중략)... 그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신앙심 보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머리속에 박혀 있는게... OO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OO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의지하고...(중략)...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안산, 사례3); “근데 친구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잘 적응하거든요...(중략)... 그런데 여기 오는 언니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나 밖에서나 자기가 아는 척 하고 막 자기가 먼저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잘 하더라구요.” (안산, 사례7)

“네, 제가 보는 그 한 세 네 번 정도 봤는데 다 잘 적응하시고 애들도 초등학교 보면은 너무너무 잘 커요 말도 잘 듣고 그분은 실제 한국여성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적은 없어요.”(영암, 사례5); “음식을

먹을 때, 가령,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시원하다’라고 말하거나, 삼겹살 먹을 때, 마늘하고 먹고 김치 잘 먹을 때, 한국사람 같다...(중략).” (영암, 사례8)

“지금은 말없이 어른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심한 일도 시키지 않지마는 그 옆에도 누가 이야기를 해줬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잘 따라주고 우선은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더라고. 내 생각이.” (안산, 사례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적응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적응판단의 심층구조를 탐색할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적응도 평가에서와 유사하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바람직한 적응행동으로 언급된 내용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즉, 안산 지역의 경우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바람직한 적응행동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 노력’을 전형적으로 언급했다(참조: 안산, 사례 1,7). 반면에 영암지역의 피면접자들은 바람직한 형태의 적응행동을 ‘지역주민과의 친화에 요구되는 이주 여성의 성격특성’과 관련지어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참조: 영암, 사례 1, 12). 안산지역의 피면접자들이 ‘문화소통 노력’을 전형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행동을 통제 가능하고 학습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반면에, 영암에서 피면접자들이 성격특성을 전형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행동을 그들의 기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이러한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성실성이나 ‘시댁식구들에게 잘한다’든지 ‘남편과 금슬이 좋다’는 등 한국 가정에서의 전통적 여성역할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바람직한 적응 기준으로 보는 점은 두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참조: 안산, 사례11; 영암, 사례8, 2).

“(중략)... 제일 큰 문제가 의사소통인 거예요. 소통이 안되니깐... 생기지 않아야 될 트러블도 생기는 거예요...(중략)”(안산, 사례1); “첫째로 말을 빨리 배워야 해요. 왜냐면 중국 저희 세입자들이 진짜 중국 본토분들이 많은데요 말이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전기세 그러면은 이제 몰라몰라 몰라 이래요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요. 한국말 좀 배워 그러면은, 진짜 말이 하나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진짜 답답해요...(중략)”(안산, 사례7)

“성격이 밝으니까...(중략)... 자기가 먼저 보고 몇몇 분들은 있어요. 저희들한테 내가 자기네들 아이들 이빠해 주고 그러니까 보면 “안녕하세요?” 자기네들이 먼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성격들이 보면 자기가 먼저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하니깐 나도 아 굉장하다. 이렇게...(중략)... 내가 이름은 다 기억은 못 하고 보면은 다 알아요. 언어가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밝은 성격이 가장...”(영암, 사례1); “여그는 우리나도 여기 한국 며느리가 있어. 우리 며느리보다 더 영리하고 더 잘혀. 잘해서 좋고. 낫낫하고. 아랫마을 여자도 그라고 낫낫하

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그그 가정이 좋아.”(영암, 사례12)

“(중략)... 맛짬하고, 안 놀아요. 뭐라도 할려고 하고. 우리 한국사람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은 가서 해내고 하는게.”(안산, 사례11); “저도 처음에 농사일 할 때, 손에 익지도 않고 그랬는데, 손에 익지도 않은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밥도 잘 차려주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영암, 사례8); “그거를 전혀 그 사람이 아주 생소할 텐데, 남자 하는 농사일에 남편이랑 같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이 썸이 날 정도로 금슬이 좋아요. 딱 같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내가 본다구요. 거시기하다고 놀리고 그래요.”(영암, 사례2)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동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우세했다. 반면에, 그들이 자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찬성한 피면접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앞절에서 제시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거나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호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 유지에 대해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한국 문화와의 조화로운 융합을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주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대로, 피면접자들의 응답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일부는 최소한 명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한국 문화에의 동화를 전제로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거나 ‘오랫동안 자기 문화에 젖어왔으므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 유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피면접자들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한국에 왔으면 여기의 풍속을 따라야지.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서 그 집의 풍속을 따르듯이, 여기 신랑의 문화를 따르고 여기에 맞게 고치며 살아야 한다...(중략)... 빨리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중략)... 여기 풍속을 따르고, 남편 따르고 하면 된다...(중략)”(영암, 사례3); “처음부터 권리 주장을 하지 말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던 것처럼, 우선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영암, 사례8); “안되죠. 자기 문화만 생각하면 여기 와서 살아진다고? 우리나라 문화를 자기들이, 말이 있어 여자는 결혼하면 시간을 새긴다고. 여기 오면 노력을 하고 살아야지.”(영암, 사례10)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국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피면접자들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태도가 우세했다. 그러나 이들이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본 이유는 문화통합이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심층수준의 이문화 이해나 수용보다는, ‘의사소통에 필요하니까’, ‘처가집에도 가야 할테니까’, ‘외국어를 배우면 나쁠 것이 없으니까’ 등과 같은 언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 도움의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이 전형적이었다(참조: 안산, 사례10; 영암, 사례3).

“그것도 괜찮을꺼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대화가 되어 되니까. 같이 살래면은 대화가 되어 되니까.”(안산, 사례10); “뭐 그것도 배워서 나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중국을 가려면 중국말 한 마디라도 하는게 낫다고...(중략)... 우리가 뭐 영어를 하려고 열 올릴 것이 아니라 베트남어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중국어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좋겠잖아요...(중략)”(영암, 사례3)

피면접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언어를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본 것과 일관되게,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밖에 ‘경제적 어려움’, ‘예의 범절이나 음식에서의 차이’, ‘자녀교육’ 등도

자주 언급되었다(참조: 영암, 사례3, 11). 이처럼 피면접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내용은 언어나 생활 습관의 차이 등과 같은 표면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문화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수문화와 주류 문화 간의 문화충돌이나 갈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나 소수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 문제 등과 같은 심층수준의 문제들을 인식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수준이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심층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존재를 인정한다거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력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노력으로 ‘이주여성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거나(참조: 안산, 사례10; 영암, 사례11), ‘취미나 사교, 음식’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심층수준의 문화 이해와 수용에 요구되는 노력을 언급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말도 못하고, 음식도 통하고 옷차림도 틀리고, 다 다르니까 힘들 거 같아요. 그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음식과 말을 못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암, 사례3); “근데 애 낳아 갖고 학교를 가면 애기 엄마는 한국분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놀림받고 하는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만. 애들 교육문제..(중략).” (영암, 사례11)

“근데 한국 남성들도 중국 여성을 100%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생활권을 안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중국 여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진짜 살 만하면 재산 같은 거 갖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서로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해요.”(안산, 사례10); “사람 나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교류해서 빨리 우리나라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이 다 사람 나름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동네사람들이 예쁘게도 볼 수 있고 싫어 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부단히 우리나라 풍습에 같이 배우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동네사람들이 잘 가르쳐주고, 의사소통도 되고...” (영암, 사례11)

“서로, 혼자 있다보면 같이 놀아주고 어울리고 이거 시골에는 일 같은거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차같은 것도 한잔 마시고 놀러 자꾸 드나들면은 아주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영암, 사례5);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조금 잘 살면 조금 덜 도와주고, 못살면 좀 더 도와주고 그러면 될 거 같다.” (영암, 사례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행동의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의 세 번째 단면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행동의도는 외국인과의 결혼 수용이나 그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수용할 의도, 자신의 자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의 접촉을 수용할 의도가 있는지

등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가족 구성원(친지, 자녀) 중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명의 피면접자를 제외하고는 피면접자들 모두 ‘찬성’, ‘반대하지 않는다’, ‘사람만 좋다면’ 등으로 답함으로써, 이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보였던 전반적인 호의적 태도와 일관된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행동의도의 근간에는 ‘결혼을 못하는 것 보다는 낫다’, ‘외국여행도 하고 좋을 것 같다’, ‘돈이 적게 든다’ 등의 시각이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참조: 안산, 사례6, 11; 영암, 사례4). 외국인과의 결혼 수용의도와 유사하게, 자신의 자녀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간 접촉을 수용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러한 답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다(참조: 영암, 사례1, 10).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에서 친지나 타인에게 직접 소개한 경우는 단 두 사례에 불과했다.

“저는.. 그냥 뭐 찬/반을 이야기한다면 찬성입니다...(중략)... 오히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가간다면 외국 여행도 가고...(중략)”(안산, 사례6); “그것도 좋죠, 결혼못헌. 그 나이 많아갖고 또. 특히 시골에 농촌 층각들, 결혼 못한 사람들 많아요.”(안산, 사례11); “한국에서 갈라고 해도 못간게. 될 수 있음 잘 되 가가지고, 가면 되지, 가서 잘해부려. 내가 동생들한테 그런 소릴 한 거 같아요. 한국에서 결혼해도 처갓집 한 번 가면 한 10~20만원씩 깨진다 이거예요. 반쯤만 주면 대우받을 거 아니냐.”(영암, 사례4)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중략)... 즈그들도 어울려서 같이 학교 다니고 하니까...(중략)... 그 애들을 나서는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중략)”(영암, 사례1); “그렇지 할 수 없지. 즈그 좋아서 그렇게. 옛날과 달라서 밖에도 못나가게 하고 남자도 못 만나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버리고. 한국에 외국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은 될 거 같은디.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들이 친하게 지낸다면 상관없다.”(영암, 사례10)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쩔 수 없다’는 대세론과 명시적 반대의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어차피 진행중이다’, ‘세계적 추세이다’라는 현실 인식을 나타냈다(참조: 영암, 사례11).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하나의 추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들을 접할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피면접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배 풀어야 한다’는 우호적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 그럴만한 역량이 있다’는 일종의 자긍심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다분히 고정관념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진정

한 의미의 이문화 이해나 수용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우리도 이제 잘 사니까 괜찮다’는 시각,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해서 그들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문화적 우월주의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영암 사례2).

“(중략)... 그 개방은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니깐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깥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애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니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 서로가 부족하다 보면 외국사람들도 받아들인데, 어차피 개방되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중략)...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해서 지킨 것이 많았던 것처럼,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중략)” (영암, 사례11)

“나라끼리도 해외화가 분명히 되어가는 과정이고 어쩔 수 없어요...(중략)...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들어온 여자한테는 뭐, 일 년에 몇 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한국사람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가르치면 자꾸 공부 되듯이 전수가 왜 안 되요? 되지...(중략)... 월남은 내가 아는 형식으로 지금도 저 나이에 있는 여자들한테 받고 사는 세상이에요...(중략)... 그러니까

지금 저 때 40대 저런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남자는 한 명꼴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자 나이 25 넘어버리면 천물 되는 거예요. 천물. 그런데 거기서 결혼도 못하고 사는 것 보다는 여기서 내가 이 길이라도 택해서 다른 길도 택할 수 없죠. 자기가 속으로는 깨여서 벗어나잖아...(중략)...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쌀을 안 먹어서 쌀이 남아돌아서 전부 우리 이런 지경에 있잖아요. 꼭 돈을 받고 판다기 보다는 다소 또 이렇게 없는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중략)... 세상에 지금 밥을 굶고 죽는다는 말이 뭐 말이에요...(중략)... 말해봐요. 내 것 주는데 누가 나쁘다 그래. 내 것 주면 다 좋다고 해요...(중략)” (영암, 사례2)

일부 피면접자들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최소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추세로 인정하는 데 비해서, 일부 피면접자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서 강한 고정관념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혼혈아가 많아지므로’, ‘우리도 가난한데 불순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만 벌어가지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를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참조: 영암, 사례12; 안산, 사례4)

“그것은 너무나 많이 해갖고, 튀기가..안 좋을 것 같애...(중략)... 돈 벌라고 나온 사람도 있제, 정당하고 결혼하고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은. 너무 외국사람이 많이 들어와..가난한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에 너무 있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는 안 들어오게. 너무 돈벌라고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부자면 괜찮은데 없는디 벌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버리잖아요.” (영암, 사례12)

“이주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한국남자들이 뭐랄까.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서 되는데 순수한 목적이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중략)... 결혼을 수단으로 해서 한국을 들어올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야. 그러면 뭐 다문화? 다문화를 왜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이 개방되면서 스스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되는 거지 다문화를 꼭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 민족도 중요한 거는 지켜야지, 우리 민족도, 전통을 빨리 다 문화 해서 헐자는 거야, 뭐야? 우리 순수한 백의민족도 혈통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만 섞어놓을게 뭐가 있어. 불화만 생기는데?... (중략)...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화합도 안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중략)... 서로 접촉이 되도록 순수한 목적에서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인위적으로 막 사들여오다 보니까 문제가. 국가가 아까같이 규제를 해야돼...(중략)... 중국 사람들은 문제야.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한다니까...(중략)...

한국말 하나도 못 하는 애들이 와서 지네들이 와서 중국말을 배워서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중략)... 토막살인사건 났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죽여? 이런 나쁜놈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니까...(중략)...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어요.” (안산, 사례4)

끝으로 면접에 응한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 이민자와 관련하여 시급히 필요한 대책으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자녀교육, 복지시설 확충, 국제결혼 중개업소 단속, 한국문화 및 언어교육, 시민적 권리보장, 남편교육, 경제적 지원, 직업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자국 커뮤니티 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 가운데 안산지역의 피면접 주민들은 불법체류자 해결이나 탈법적 국제결혼중개업소 단속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참조: 안산, 사례4). 이는 외국인노동자 밀집지로서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영암 지역의 피면접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적응 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는데 이는 농촌의 공동체적 문화전통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영암의 피면접자들에게서는 언어교육을 비롯하여 예절, 음식, 놀이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참조: 영암, 사례11).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영암의 한 피면접자는 심지어 한국식 남존여비사상까지도 한국사회의 전통으로 교육시켜야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참조, 영암, 사례2).

“베트남 가서 삼 일만에 사오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돼. 또 뭐 브로커들이 돈 받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도 모집해다가 팔아먹는 것도 욕먹어. 국가 이미지를. 그거를 못하게 해야 돼. 순수하게, 만나서 순수하게 해야지. 인신매매랑 똑같은 거야. 그거를 제재를 해야 돼. 지원할 필요도 없어.” (안산, 사례4)

“의사소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명절이 되면 예절교육도 하고, 우리하고 어울리려면 우리와 놀 수 있는 놀이 등을 배워, 빨리 우리와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영암, 사례11)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존여비사상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여성존중 사회라 해도. 그러면은 한국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 말이여...(중략)...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야 갈등을 덜 있을 것 아니냐. 요런 면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 (영암, 사례2)

논 의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접촉경험,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

방성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 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의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결과를 통해 확인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용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서는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옹호하는 시각에서 여성의 일방적 순응을 강조하는 견해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 ‘아내로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간의 접촉은 일상적 대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쌍방향 소통 및 이해를 증진하고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을 조성할 수 있는 심층 수준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은 대부분 단순한 오해나 언어장벽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접촉 경험 자체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심층 수준의 갈등이 발현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호의적 태도는 한국 사람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등주의’, 한국에서 필요해서 왔으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든지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실용주의적 관점’ 등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

의 세금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혼관계의 존속여부나 자녀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고, 적지 않은 사례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명시적 반대 의견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심층 수준의 태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긍정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접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긍정적 행동의도의 근간을 이루는 인식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 인정이 주를 이루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성실성이나 한국 가정에서의 전통적 여성 역할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바람직한 적응 기준으로 보는 점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통점과 달리, 안산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적응 노력을 주로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생활사건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반면, 영암의 주민들은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와 관련된 생활사건들을 토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바람직한 적응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도 두 지역 주민들의 응답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산에서는 주민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소통 노력을 강조한 데 비해서, 영암지역 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기질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문화 간 이해와 수용, 그

리고 조화로운 융합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에 부합하는 수준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인식의 근원에는 상황과 관계맥락에 따라서 유동적 자기 인식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자기 인식의 특성(김의철, 박영신, 2006)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수준이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심층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은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어려움으로 언어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과 같은 표면 수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문화충돌이나 갈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나 소수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 문제 등과 같은 심층수준의 문제들을 인식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충격 또는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혼란,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의 한계, 그리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편견 및 차별 등에 대한 심층수준의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는 농촌총각 결혼과 같은 현실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차피 진행 중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 자체의 부도덕성, 한국인들에 대한 역차별,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 등에 근거한 명시적 반대나 거부 의견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시각차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유입이 인위적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유입이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인식 내용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과 강하에 연결되어 있는 점이다. 특히 영암의 피면접자들 중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인 순종적이고, 근면한 여성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상은 시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면서 남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제결혼시장이 현존하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주장(Nakamatu 2005)과 맥을 같이 한다.

위와 같은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는 소수의 제한된 생활사건을 매개로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여성결혼이민자들 간 접촉의 다양성을 높이고 접촉의 깊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의적 태도가 표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양방향의 문화적 소통이나 문화통합,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개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

운데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구성경계(boundary)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나 행동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한국 문화적응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인으로 간주하는가’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피면접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관련된 법적 기준보다는 ‘상징적’ 또는 ‘관념적’ 기준에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구성경계를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이 그들에 대한 개방성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법적 기준에만 집착해서는 지역사회 수용성 수준을 증진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상호작용의 내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여성정책으로서 새로운 전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들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지원을 통한 가족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심층 수준의 태도는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위주의 협소한 정책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다문화사회 형성의

견인차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이해하는 인식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여성결혼이민자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에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의 소중한 지역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닌 능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적응문제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지역사회 동반자인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의 제 단면을 심층 수준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가 적절한 연구방법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관련 문헌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구성하여 그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문제 중심 접근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 주제에 걸쳐 개인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의 특성 및 그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태도 및 행동에서의 개인차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례연구 지역으로 선정된 안산과 영암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제한점이다. 안산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로서,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의식과 태도에 안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면접 대상자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의 접촉 경험이나 상호관계의 성질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접촉 경험 및 수준을 지닌 피면접자들을 포함시키지 못한데 따른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접촉 경험이나 갈등 경험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피면접자들과 여성결혼이주민 간의 상호작용 경험이 일상적 대면이나 접촉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라든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직접적인 갈등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면접에 포함하여 이러한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은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피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동화를 전제로 한 배타적 다문화주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성원으로서의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관계 역시 매우 피상적이고 취약한 상태이다. 장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특징을 중심으로 그러한 특징이 발현되는 심리적 기제 및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을 상세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의철 ·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36.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설동훈 · 이해경 ·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순형 · 문무경 · 최연실 · 이숙정 · 정하나 · 우현경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정기선 · 김영혜 · 박경은 · 이은아 · 박지혜 · 이승애 · 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 (2006). 길찾기: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주경미 · 김현지 · 이옥경 (2006). 부산시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정책방향. (재)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최금혜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6). 소통과 동행-다문화가족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33-54.
- 법무부 (2007). 「2006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http://www.moj.go.kr>.
- 통계청 (2007). 「2006년 혼인통계결과」. <http://www.nso.go.kr>.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1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ck, J. S., & Mendenhall, M. (1990). Cross-cultural training effectiveness: A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113-136.
- Brewer, M. B. (2003). *Intergroup relations* (2nd ed.). Open University Press.
- Stephen, C.,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Chun, K. M., Organista, P. B., & Marin, G.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rocker, J., &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stigma.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504-553.). New York: McGraw-Hill.

- Cushner, K. (1986). *The inventory of cross-cultural sensitivity*.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Dovidio, J., & Gaertner, S. (1996). Affirmative action, unintentional racial biases, and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2, 51-75.
-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357-411.). New York: McGraw-Hill.
- Gudykunst, W. B. (1998). *Bridging differences: Effective intergroup communication*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udykunst, W. B., Guzley, R. M., & Hammer, M. R. (1996). Designing intercultural training.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2nd ed., pp.61-80). Thousand Oaks, CA: Sage.
- Gudykunst, W. B., Ting-Toomey, S., Sudweeks, S., & Stewart, L. (1995). *Building bridges*. Boston: Houghton Mifflin.
- Kinder, D. R., & Sears, D. O. (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14-431.
- Liebkind, K. (2000). Acculturation. In R. Brown &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4, pp.386-404). Oxford: Blackwell.
- Loo, R. (1999). A structured exercise for stimulation cross-cultural sensitivity.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4, 321-324.
-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Dovidio & S.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New York: Academic Press.
- Nakamatu, T. (2005). Faces of Asian Brides: Gender, race, and class in the representations of immigrant women in Japa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8, 405-417.
- Pettigrew, T. F., & Meertens, R. W. (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Stephen, W. G. (1985). Intergroup relations.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599-658). New York: Random House.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Tougas, F., Brown, R., Beaton, A. M., & Joly, S. (1995). Neosex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842-849.
- Triandis, H.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Ward, C. (1996). Acculturation. In D. Landis & R. Bhaga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2d. ed., pp.124-147). Newbury Park, CA: Sage.
- 논문투고일 : 2008. 10. 13
1차 심사일 : 2008. 10. 20
게재확정일 : 2008. 11. 20

Receptivity to Migrant Wives in Korea: A Qualitative Approach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Ai-Gyung Ya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un-Ju Le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overall receptivity of community members to migrant wives in Korea. A total of 23 community members from two regions, Ansan, an urban area and Youngam, a rural area,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 based on their prior experience with migrant wives. Data were collected via a semi-structured interview method. The participants provided their personal feelings and thoughts on a variety of issues involving migrant wives, such as how they perceive migrant wives' original culture and lifestyles, the nature of their interaction experience with migrant wives, their overall evaluation of migrant wives, their opinions about migrant wives' cultural adaptation, and their opinions about the on-going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ociety into a multi-racial, multi-cultural society. Interview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migrant wives was positive, the overall receptivity to migrant wives was largely based on the traditional sex-role stereotypes typically found in the Korean society. Moreover, the vast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endorsed a narrow-minded, uni-directional perspective on cultural adaptation which puts far greater emphasis on migrant wives' assimilation into the host culture than reciprocal influence process between the two cultures.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igrant wives, receptivity to migrant wives, multi-racial/multi-cultural society.*